

인기 미드 리메이크 '슈츠', '현지화의 늪' 빠져나갈까?



'슈츠'는 기존 미국 드라마(이사 미드) 리메이크작들이 약속이나 한 듯 빠져있는 한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오는 25일 전세계적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NBC 드라마 '슈츠(Suits)'를 리메이크한 KBS2 새 수목극 '슈츠'(극본 김정민, 연출 김진우)가 첫 방송된다. '슈츠'는

앞선 작품들 작품성·홍행 기대에 못미쳐

"접근 방식 등 현지화...스토리 최대한 반영"

미국 최고 로펌의 일류 변호사 하비 스펙터가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마이클 로스를 후배 변호사로 받아들이며 펼쳐지는 법정 드라마로 미국에서 오는 7월13일 시즌5 방송을 앞두고 있다.

해가 거듭될 수록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미드 리메이크는 작품성과 흥행성이 보장된 소재와 장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미드는 국내 드라마와 소재, 이야기 구조 등 여러 면에서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

국내에서 미드가 리메이크되는 건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tvN에서 '굿 와이프', '안투라지', '크라미널 마인드'가 방영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작품 모두 작품성, 흥행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낳았다.

'슈츠' 제작진도 앞서 미드 리메이크작들의 아쉬운 지점을 파악하고 있다. '슈츠' 책임 프로듀서를 맡은 KBS 성준해 CP는 "제작에 들어가기 전 앞선 미드 리메이크 작품의 사례들을 참고했다"며 "미드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현지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원작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내 시청자의 정서에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는지에 상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CP는 "일본·대만 드라마와 서구권 작품을 리메이크하는 건 다소 다르다. 서구권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문화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로 각색했을 때 과연 미드의 장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슈츠의 경우 법률 변호사 이야기인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률 체계도 다르고 국민들이 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고 말했다.

'슈츠'가 찾는 해법은 원작의 현지화 작업을 거치지 원래 에피소드를 최대한 살리는 전략이다. 성CP는 "작가가 법률적인 문제, 접근 방식은 현지화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원작 스토리와 에피소드를 최대한 극에 반영하려 했다"고 밝혔다.

원작 '슈츠'의 또다른 강점은 캐릭터 강한 두 남자 주연배우들의 '브로맨스'. 이 지점은 장동건·박형식 '투톱'의 호흡으로 충분히 살려낼 수 있다는 게 제작진의 자신감이었다. 실제 현장 제작진이 느끼는 둘의 연기 호흡은 '기대 이상'으로 전해진다.

'라이브' 정유미X이광수, 안방극장 뭉클하게 만든 진심



'라이브' 정유미와 이광수가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점점 성장했다. 지난 15일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라이브'(노희경 극본, 김규태 연출)에서는 한정오(정유미)·염상수(이광수) 등이 성폭행에 이어 살인

까지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여성청소년과 과 수사팀장 안장미(배종옥)는 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오장준(배성우)은 전담팀으로 차출되어 레전드 명성에 걸맞은 수사 감각을 발휘했다. 흥인 지구대 경찰들은 순찰을 하고 수배 전단을 붙이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먼저 한정오는 피해 자매를 설득하며 수사를 진전시켰다. 앞서 자신 역시 성폭행 피해자임을 고백한 한정오. 그는 자매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하지 않기를 바랐다. 자신이 12년 전 범인보다 그 장소를 지나갔던 자신을 미워했듯이 말이다.

특히 한정오는 어릴 적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해주었다. "그 어떤 것도 네 잘못이 아니야, 범인의 잘못이지"라고 위로와도 같은 말이었다. 한정오의 진심이 전해진 것일까. 아이는 마음을 열고 한정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피해 자매의 진술을 토대로 범인의 몸타주가 그려졌다. 범인의 족적을 통해 구매 기록을 추적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 오양준은 반쪽 범인이 매장 손님이 아닌 주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렇게 범인의 정체에 성큼 다가갔다. 이와 동시에 수배 전단을 붙이던 중 범인과 스친 염상수의 모습은 짜릿함을 빼앗겼다. "용의자를 발견했다. 지원 비탄"을 외치며, 범인을 쫓는 염상수의 연달아 긴장감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까지 고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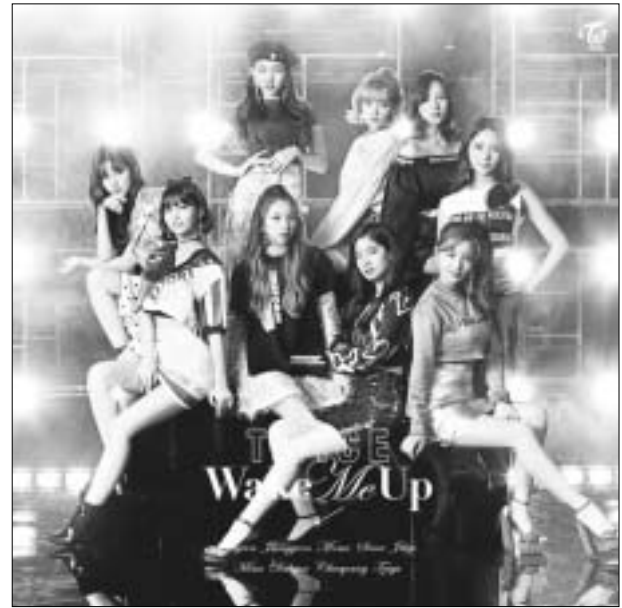
경찰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범인을 잡기 위해 애썼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위로를 받는 이들의 모습은 뭉클함을 전했다. 한정오는 안장미에게 큰 사건을 겪

고도 멀쩡히 살아가는 자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털어냈다. 그것도 다 편견이라는 안장미의 명쾌한 조언에 "난 그냥 잘 견디고 있던 거네요"라고 용기를 얻었다. 그런 한정오에게 "난 아직도 사건 현장이 마음 아픈다고 고백하는 안장미의 모습은 두 사람의 더욱 끈끈해진 관계를 엿보게 했다.

신인 동기 한정오와 염상수는 함께 성장해가고 있었다. 성폭행법 잡는 것에 왜 이렇게 열심이라는 한정오의 질문에, 염상수는 "오늘 같은 일 다시는 안 보고 싶은 마음. 더는 어떤 아이들도 안 다치게"라고 답했다. 그런 염상수의 든든하고 따스한 마음에 한정오는 미소를 보였다. 점점 진정된 경찰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껴나가는 이들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나란한 성장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물들였다.

소소한 사건부터 굵직한 사건까지, 사회의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면서도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라이브'. 가슴 뭉클한 울림은 물론 묵직한 메시지까지. 어느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이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기록 행진' 트와이스는 멈추지 않는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신기록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비록 음원차트 1위는 안타깝게 다른 가수들에게 내줬지만, 여러 신기록을 세우며 K팝 신을 평정했다.

트와이스가 지난 9일 발표한 미니 5집 타이틀곡 'What is Love?'는 공개 5일만에 4000만뷰를 넘어섰다. 16일 오후 1시 기준으로는 4400만뷰를 돌파한 상황이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Likey'로 보유하고 있던 6일 17시간의 기록을 또 앞당기며 걸그룹 최단 기간 4000만뷰 돌파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데뷔부터 지금까지 모든 활동곡을 빠짐없이 1억뷰 반열에 올린 트와이스는 '왓 이즈 러브?' 뮤직비디오를 통해 8연속 1억뷰 돌파 기록도 노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빌보드에는 "트와이스가 신곡 '왓 이즈 러브?'로 차트 정상에 차지하며 K팝 신을 평정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와이스가 휩쓴 건 국내 뿐만이 아니다. 트와이스는 지난해 6월 일본 데뷔 베스트앨범 '#TWICE', 10월 일

본 첫 싱글 'One More Time', 올해 2월 2번째 싱글 'Candy Pop'으로 일본 레코드협회로부터 3연속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Candy Pop'은 41만장을 넘는 출고량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제 32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는 신인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5관왕을 석권했고 현

지 데뷔 불과 8개월여 만에 앨범 출고량 100만장을 돌파, 아시아 원톱 걸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뽐냈다.

또 트와이스는 오는 5월 16일 일본에서 3번째 싱글 'Wake Me Up'을 발매하고 현지서 4연속 인기 흥행을 점조준한다.

이 기세를 몰아 5월 28일과 27일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6월 2일과 3일 오사카성 홀에서 총 4회로 공연을 열며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방콕 등에서도 해외 투어에 펼칠 예정이다.

한편 트와이스는 최근 다수의 음악방송을 통해 신곡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불은표춤', '음~춤', '강강춤' 등 보는 재미를 배가시키는 다양한 포인트 안무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트와이스는 오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두 번째 투어 '트와이스랜드 존 2 : 판타지 파크 (TWICELAND ZONE 2 : Fantasy Park)'를 개최한다. 트와이스는 3회 총 1만 8000석의 티켓을 광속 매진시키며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비긴어게인2' 라이브로 입증한 김윤아·로이킴의 힘

가수 김윤아와 로이킴이 라이브의 힘으로 성공적인 포르투갈 버스킹을 펼치고 있다. 팀원들의 팀워크가 보다 탄탄해지고 끈끈해지면서 시너지가 발휘됐다. 가수는 모름지기 노래, 라이브를 잘해야 한다는 말을 입증시켜줬다.

지난달 30일 첫 방송된 JTBC '비긴어게인2'는 지우림 김윤아와 이선규, 그리고 윤건과 로이킴이 합류한 포르투갈 버스킹 무대로 시작했다. 네 사람이 어떠한 조화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높였다.

시종였기에 전 시종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얼마나 차별적인 요소를 살리면서 형을 넘어서는 아우의 힘을 보여줄지가 관건이었다. 첫 시작은 성공적이었다. 팝 위주의 흐름에서 벗어나 우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데 집중했고 진정성이 담긴 목소리로 승부를 띄웠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노래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첫 회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김윤아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만는 노래 '강'을 부를 때였다. 한글로 된 노래에, 무게감 있는 노래였지만 포르투갈 사람들이 마음으로 노래를 느꼈다. 목소리 자체가 약기었고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감동을 자아냈다.

몽환적인 보이스를 자랑하는 김윤아가 있다면, 부드러운 매력으로 귀를 종횡하게 만드는 로이킴이 있다. 로이킴은 선배들과의 공연에 주눅들지 않고 제 기량을 발휘 중이었다.

즉석에서 연주와 노래가 이뤄지

는 버스킹 무대는 가수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마련. 네 사람은 흔들림 없었다. 이름값을 톡톡히 발휘하며 라이브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두 사람이 보컬의 중심부를 잡고 그 뒤를 윤건과 이선규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구조. 버스킹을 거듭하면서 누구보다 존중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 모습이 방송 3회 내내 녹아들며 '비긴어게인2'를 채워가고 있다.

다음 화차엔 발길이 닿는 대로 자유여행을 떠나 버스킹 무대를 펼치는 모습이 예고됐다. '비긴어게인2' 4회는 20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오늘의 순세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음력 3월 2일)



▶**경띠** 드, 비, 톡 성씨 사별자는 새 인생을 시작해도 좋은 시기다. 서쪽의 2, 5, 11월생이면 평생 좋은 동반자가 될 듯하다. 자녀들도 동의하겠다. 목재, 철재 사업 불행기는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 내년을 위해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라. 변동은 아직 이르다.



▶**사띠** 사랑이 식어거나 마음 또한 담담하구나. 6, 7, 9, 12월생 동쪽에 있는 임은 내 짝이 아니다. 그, 비, 오, 흥 성씨 이제껏 방향한 것은 새로운 사업 초기 단계여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라. 이제부터라도 승자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묘띠** 5, 7, 8월생 부인에게 최대 선물은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다. 직장 내 불만을 집까지 연장하면 어두운 분위기를 변화시키지 못할 듯. 오, 톡, 흥 성씨 뱀, 원숭이, 돼지띠가 도움 주면 좋으련만, 사랑의 재화인이 필요하겠다. 북쪽과 동쪽 사람 조심.



▶**진띠** 당신 마음은 주변이 알고 있으나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자 또한 범람하니 내 주관을 챙기라. 오, 서, 흥 성씨 노력 끝에 광명 찾고, 오후에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니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용띠** 미혼 1, 6, 7월생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 어떨까. 오늘 오후 만남의 사랑을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 사, 오, 톡 성씨는 동쪽 사업으로 이익을 보기는 아직 멀었다. 쥐, 범띠를 잊어버리라. 매대 계약은 금물이다.



▶**진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내 인격도 실추된다는 사실을 알라. 2, 7, 8월생 믿는 사람에게도 비밀만큼은 감추는 것이 좋다. 지나친 언행은 불화를 낳는 지름길이다. 비, 오, 톡 성씨 부부 새로운 기본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라. 북쪽과 동쪽이 길하다.



▶**말띠** 5, 9, 12월생 소신껏 행동하고도 남에게 원망만 들는 것이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화를 막는 길이다. 그, 드, 오, 톡 성씨 일은 인생의 맛을 내는 소금임을 알라. 힘든 것을 참고 이겨내는 자만 성공할 수 있다.



▶**염띠** 공직자는 검은손을 내쳐야 할 시기다. 3, 4, 7, 11월생 꼬리는 잡히기 마련이다. 공익사업에 힘쓰는 것이 좋겠다. 그, 나, 사, 흥 성씨 먹기 싫은 밥을 억지로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적당한 내 위치를 인식하고 정의로써 배척하는 것이 좋겠다.



▶**유띠** 사비수에 걸리지 말고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라. 오, 톡, 표 성씨 사업도, 가정도 물에 잠긴다. 나무나 분재를 가까이 두는 것이 좋다. 3, 5, 9월생 마음의 상처는 방긋이나 쥐, 용, 돼지띠를 편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보내주라.



▶**계띠** 미혼 3, 5, 7월생 동료 덕에 새로운 이를 만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도 떨리니 내 사랑이 확실하다. 서, 서, 흥 성씨 동쪽에서 연락한 사람을 만나지 말고, 서쪽에서 온 손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나라. 사업과 가정에 좋은 인연이 된다.



▶**개띠** 나, 비, 오, 톡 성씨 건강이 빨리 회복한다. 건강을 되찾았다면 이제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3, 7, 9월생 인생의 평화는 고통 속에서 얻을 수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신물하면 아내가 화를 푼다. 갈색이 행운의 색깔이다.



▶**돼띠** 4, 5, 11월생 사랑을 속삭이는 상대의 말을 가볍게 여기면 실연한다. 좀 더 깊이 생각하라. 승진이나 직업 변동도 있으니 한층 분발해야 한다. 여성은 정신적 수양이 필요하다.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당신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겠다.